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THIS MOMENT OF FOREVER

가제 : 영원한 이 순간

저자 : Rosie Best

출판사: -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낮선 행성에서 지구로 찾아온 휴머노이드, 인간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 이들의 정체는?**

한 때는 뉴멕시코라 불렸지만 이제는 ‘평온한 계곡’으로 이름이 바뀐 곳에서 사는 칼리스타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별다른 고민이 없었다. 오히려 학교 여학생들 모두가 좋아하는 멋진 남학생과 사귀고 있으니, 세상은 아름답기만 했다. 그러나 해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축하 행사로 떠들썩해지는 ‘방문 기념일’을 맞아 카운트다운 장면도 보고 하늘을 물들일 폭죽도 보러 공원으로 달려갔던 날, 평화니 안정이니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대신 피범벅이 된 사람들과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 앞이 보이지 않는 뿌연 먼지만 남았다.

방문 기념일은 페일리언들을 태운 배가 태평양에 처음 도착한 날이다. 피부색이 푸르스름한 이 휴머노이드들은 지구와 그리 멀지 않은 헤이빈이라는 행성에서 왔다. 지구인들처럼 우주 탐사를 벌이다가 생명체의 신호를 감지하고 지구를 방문한 것이다. 이들이 첫 발을 들인 땅이 캘리포니아 해안이라 미국 정부가 맨 처음 이들을 만났고, 정체가 무엇인지,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검사도 실시했다. 칼리스타는 겨우 네 살 때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른들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않고 이 신기한 존재들에 관한 뉴스를 훑어져라 보던 모습은 기억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온 몸이 녹색인 페일리언 대표가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자신들을 소개하던 날 이후, 세상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다. 칼리스타의 고향이 뉴멕시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때만 해도 날씨는 대체로 무덥고 건조했지만 갑자기 사계절 내내 농사짓기 좋은 날씨로 확 바뀌더니 어딜 가나 푸르른 풀들이 쑥쑥 자랐다. 페일리언을 태운 우주선들은 계속해서 지구로 밀려왔다. 처음에는 인간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고 여행자들처럼 돌아다니기만 했지만, 이들이 인간을 괴롭히던 병을 전부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암, 말라리아, 백혈병까지, 페일리언 덕분에 고칠 수 없는 병 같은 건 다 사라지고, 백신도 약도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페일리언들에게 제발 지구를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드러난 음모, 지구를 정복하고 인간을 없애려는 외계 종족과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다**

그로부터 칼리스타가 열여섯 살이 되기까지 12년 동안 페일리언들은 인간과 지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생체 신호기가 이식되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집중만 하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 통제실에서 이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면서 개개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했다. 페일리언들은 인간에게 마음이 명상을 하듯 항상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씬 없이 이야기하면서 화가 나든, 신나는 일이 생기든 절대로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했다. 침착하게 바로 눈 앞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것에만 집중할 것, 앞 일을 예견하거나 큰 그림을 떠올리려고 하지 말 것, 이 규칙을 어기면 생체 신호의 변화를 통해 통제실이 즉각 알아채고, 몸에 이식된 신호기가 퓨즈가 끊어지듯 곧바로 꺼져버린다. 방문 기념일이 신나는 이유 중 하나는, 1년 중 유일하게 이 모든 감정의 통제가 사라지고 마음껏 웃고 떠들며 흥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칼리스타로선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날이었지만, 아빠 때문에 자칫 이 신나는 행사에 참석도 못할 뻔 했다.

칼리스타의 눈에 아빠는 친구들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을 떠들어대는 괴짜일 뿐이었다. 페일리언이 지구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침략한 것이라고,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몰아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아빠의 주장은 정신 나간 소리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 존재들을 쫓아내야 할 적으로 여기다니? 칼리스타는 아빠가 너무 부끄럽고 싫었다. 하지만 사방에 폭탄이 터지고 비명과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그 날 축제장에서, 칼리스타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아빠의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었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모두 통제하며 아무 것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든 뒤, 무차별 공격을 시작한 페일리언들. 철없이 그들의 지구 방문을 축하하던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든 장소마다 무시무시한 폭탄을 터뜨린 것을 시작으로, 이 외계 행성의 냉혹한 존재들은 지구를 빼앗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 칼리스타는 이제 아빠가 혼자서 준비해온 대로,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야 한다.

**<저자 소개>**

로지 베스트(Rosie Best)는 영국 'Working Partners Ltd'에서 YA 도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데뷔소설 『Kulk』로 2012년 'Undiscovered Voices' 상을 수상했다.

제목 : APPRENTICE WITCH  
가제 : 마법사 연습생  
저자 : James Nicol  
출판사: Chicken House Ltd  
발행일: 2016년 7월 7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마법사가 되려는 열혈 연습생, 그러나 발목을 붙잡고 만 이상한 마법

5년 동안 열심히 마법 학교를 다닌 에리언윈에게 마침내 정식 마법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날이 찾아왔다. 연습생 딱지를 떼고, 가슴에 진짜 마법사들만 다는 별 모양 배지를 달고서 마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에리언윈이 그토록 꿈꾸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엄격하기로 소문난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바로 그 날이 찾아온 것이다. 학교에서 최대 라이벌인 김마는 화려하게 차려 입고 시험장에 와 있다가 에리언윈을 발견하자마자 온갖 기분 나쁜 말들을 쏟아냈지만, 에리언윈은 개의치 않고 침착하게 시험 점수를 마쳤다. 하지만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던 중에, 오래 전부터 에리언윈을 괴롭힌 이상한 마법이 끼어들고 말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족족 안 좋은 일을 예고하는 주문, 오래 전 엄마의 죽음도 알려준 그 주문이 하필 마법사 시험을 치를 때 불쑥 떠오르고 만 것이다. 결국 에리언윈은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가장 성적이 우수한 마법사에게 주는 금 배지 대신 볼품 없는 황동색 배지에 만족해야 했다.

에리언윈이 사는 왕국을 포함한 네 개의 왕국들은 먼 옛날부터 특별한 심볼을 활용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법을 관리해 왔다. 마법사의 역할은 상형문자처럼 생긴 이 심볼이 각각 상징하는 의미를 기억하고, 적절한 주문을 외워서 마법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공기처럼 곳곳에 떠도는 마법의 에너지를 쓸모 있게 이용하고 그 힘이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다스릴 줄 아는 마법사가 꼭 필요했다. 에리언윈은 할머니에게 처음 마법을 배운 날부터, 줄곧 가장 훌륭한 마법사가 되기만을 꿈꿨다. 마법사 시험에 통과하려면 네 개의 필수 상징과 두 개의 보조 상징을 차례차례 잘 다스려야 했다. 물과 치유, 예언의 상징인 알루나, 땅과 힘, 보호, 생명을 상징하는 얼테, 불과 에너지, 방어를 의미하는 아드라, 분명 여기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섯 가지 상징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마법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존재할 리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들 하지만 에리언윈에게는 수시로 떠오르는 그 마법은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내뿜으며 시커먼 빛으로 주변의 모든 빛을 집어삼켜버렸다. 결국 시험장 내부를 밝히던 모든 빛이 한꺼번에 꺼지고 말았다. 심사위원들은 한숨을 내쉬었고, 에리언윈은 형편 없는 점수를 받게 된다.

### 마법 왕국을 지배하는 여섯 가지 상징, 에리언원에게만 유독 고달프고 멀기만 한 마법사의 길

할머니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 알 수 없는 마법 때문에 시험을 망친 에리언원은 점수가 낮아서 보수도 좋은 곳에서 마법사로 일하는 건 꿈도 못 꾸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할머니는 최선을 다 했으면 된 거라고 위로해주셨지만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런 에리언원이 안쓰러워 보였던지, 할머니는 너털너털해진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마법서, <마법사 연습생을 위한 안내서>였다. 얼마 뒤 에리언원은 '룰'이라는 마을에서 마법사로 일하게 되고, 에리언원은 할머니께서 주신 책을 품에 안고서 그 낯선 마을로 향한다.

능력 있는 마법사로 인정 받고 싶었던 에리언원은 룰 마을에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다행히 자신처럼 원하는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좌절한 샬이라는 소녀와 만나 서로를 위로하며 그럭저럭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김마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룰 마을에 찾아오게 된다. 알고 보니 김마는 악명 높은 룰 시장의 조카인데다가, 도착하자마자 화려한 마법 실력을 뽐내며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단번에 사로잡아버렸다. 에리언원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사이, 급기야 룰의 한 쪽을 차지한 숲에서 문제가 생겼다. 나무마다 정령이 나타나 흥흥해지더니 오랜 시간 사라졌던 어둠의 주문이 마을 곳곳을 떠돌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꼴도 보기 싫은 김마는 일단 제쳐두고, 에리언원은 이 이상한 마법들부터 단속해야 한다. 아직 어설픈 마법 실력과 중요한 순간마다 떠오르는 이상한 마법, 사사건건 괴롭히는 라이벌을 모두 물리치고 룰 마을을 구해낼 수 있을까?

누구보다 훌륭한 마법사가 되고 싶지만 하는 일마다 문제만 생기는 에리언원이 슬한 실패를 딛고 자신감을 키워가는 과정이 신기한 마법의 세계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 <저자 소개>

제임스 니콜(James Nicol)은 아주 어릴 때부터 1980년대 만화를 즐겨 보면서 소설가를 꿈꿨다. 서점,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